

<2022년 8월 21일 주일말씀>

나는 포도나무요, 너희는 가지다

[요한복음 15장 1-7절]

1.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
2.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
3.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
4.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
5.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
6.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
7.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

• 신약성경 <요한복음>은 - <예수님의 제자, 사도 요한>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서로,
<신약성경 4복음서> 중 마태복음, 마가복음, 누가복음과는 달리

보다 <말씀>을 중심하여
예수님의 성품과 행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.

<사도 요한>은 예리한 통찰력과 탁월한 영성으로,
그 무엇보다 ‘말씀으로 오신 주, 말씀으로 행하시는 주’를
명쾌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.

- <구약> 위에 ‘신약’이 세워졌고,
<신약>의 터전 위에 하나님은 또 ‘약속’을 이루시니,
<성경>을 알아야 ‘시대 말씀’도 더 깊이 깨닫게 되고,
하나님의 6000년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
이 시대의 역사를 귀히 깨닫게 됩니다.

<성경>에 ‘하나님의 약속’이 있고 ‘뜻’이 있습니다.

<성경>을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으니,
조금씩이라도 꼭 성경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.

이번 주에는 <요한복음>을 읽어 보면 좋습니다.

<말씀 시작>

▶ <성구 자막>은 ‘설교자’가 준비합니다.

- 오늘의 성경 본문도 <요한복음 말씀 중의 하나>입니다.
바로 <요한복음 15장 1~7절> = ‘포도나무 비유’ 말씀입니다.

◎ <요한복음 15장 1~4절>을 보겠습니다.

<성구 자막1> <요한복음 15장 1~4절>

『<나>는 ‘참포도나무’ 요, <내 아버지>는 ‘농부’ 라.

무릇 <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>는
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,
무릇 <열매를 맺는 가지>는
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.

너희는 ‘내가 일러 준 말’ 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,
내 안에 거하라.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.

<가지>가 ‘포도나무’ 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
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,
<너희>도 ‘내 안’ 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.』

- <포도나무>에 ‘가지’ 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,
<포도나무>에 ‘가지’ 가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.

예수님은 자신을 ‘포도나무’ 로 비유하시고,
사람들을 ‘가지’ 로 비유하시고,
하나님을 ‘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’ 로 비유하시면서,
하나님이 보낸 자신을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
포도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.

◎ 계속해서 <요한복음 15장 5절>을 보겠습니다.

<성구 자막2> <요한복음 15장 5절>

『<나>는 ‘포도나무’ 요, <너희>는 ‘가지’ 라.

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
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.』

• 예수님은 또 한 번 <포도나무>를 ‘자신’으로 비유하고
<가지>를 ‘사람들’로 비유하시면서,
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‘열매’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했습니다.

그렇다면 여기서 <포도나무 열매>는 무엇을 두고 비유했을까요?

▶ <깨끗하게 하는 것>이 ‘열매’입니다.

깨끗하게 하려면,
자신의 죄와 잘못과 모순을 회개하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.

▶ <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>이 ‘의’이며,
<의>도 ‘열매’입니다.

▶ <화평>도 ‘열매’ 이고,
<충성>도 ‘열매’이며,
<공효함>도 ‘열매’ 이고,
<생명 전도>도 ‘열매’이며,
<복음을 가르치고 생명을 관리하는 것>도 ‘열매’입니다.

▶ <기도와 찬양>, <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>도 ‘열매’ 이고,
<말씀을 상고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>도 ‘열매’입니다.

▶ <어려움과 환난을 이기는 것>도 ‘열매’ 이고,
<역경과 시련을 딛고 일어나 뜻을 찾는 것>도 ‘열매’ 이고,
<사탄과 어둠을 물리치는 것>도 ‘열매’입니다.

▶ <성삼위와 일체 되는 것>도 ‘열매’ 이고,
<구원자와 일체 되는 것>도 ‘열매’입니다.

▶ <인내하며 좋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>도 ‘열매’ 이고,
<혼란 중에 혀를 금하여 온전한 말을 하는 것>도 ‘열매’ 이고,
<어려움 속에 좋은 말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>도 ‘열매’ 이고,
<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>도 ‘열매’ 이고,
<성경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>도 ‘열매’ 입니다.

- 오늘 말씀처럼

우리 모두 성삼위 안에, 구원자 안에 거함으로
<좋은 열매>를 많이 맺을 때입니다!

◎ <요한복음 15장 6절>을 보겠습니다.

<성구 자막3> <요한복음 15장 6절>

『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,
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.』

-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와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,
그 가지는 ‘죽은 가지’ 라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.

그러면 사람들은 그 가지를 가져다 불살라 버립니다.

삼위와 주와 떨어지지 않음으로 ‘살아 있는 가지들’ 이 되어서
앞에서 말한 ‘각종 좋은 열매들’ 을 맺어야 됩니다.

- 우리는 <성경의 비유의 세계>를 배웠습니다.

꿈이나 기도 중에 하나님은 <나무의 열매>를 보여 주시면서,
<각자의 신앙 상태>를 깨닫게 해 주기도 하십니다.

어떤 열매는 작고, 어떤 열매는 크고,

또 어떤 열매는 크면서 아름답고 고급스럽고,
또 어떤 열매는 큰데 자세히 보면 보통 열매입니다.

<열매>에 따라 ‘자기 신앙 상태’를 알게 됩니다.
혹은 ‘자기가 기도해 준 생명의 상태’를 보여 주기도 합니다.

• <마태복음 7장 17~18절>을 보면,
예수님은 ‘나무와 열매 비유’를 하며 말씀하셨습니다.

<성구 자막4> <마태복음 7장 17~18절>

『<좋은 나무>마다 ‘아름다운 열매’를 맺고
<못된 나무>가 ‘나쁜 열매’를 맺나니,
<좋은 나무>가 ‘나쁜 열매’를 맺을 수 없고
<못된 나무>가 ‘아름다운 열매’를 맺을 수 없느니라.』

• <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>에, <하나님이 주신 나무>에서,
<그 나무에 붙은 가지들>이 ‘못된 열매’를 맺을 수 없습니다.

<열매>를 보면 ‘나무’를 알듯이,
<행실>을 보면 ‘어떤 사람’인지 알게 됩니다.

저마다 ‘좋은 행실, 의의 행실’로
작든 크든 ‘좋은 열매’를 맺기를 축원합니다.

◎ 마지막으로 <요한복음 15장 7절>을 보겠습니다.

<성구 자막5> <요한복음 15장 7절>

『<너희>가 ‘내 안’에 거하고 <내 말>이 ‘너희 안’에 거하면
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. 그리하면 이루어라.』

- <하나 된 자>는 ‘자신과 하나’이니,
그에게 자기 것을 줘도 그것이 ‘자기 것’입니다.

그러니 마음대로 줍니다.

<하나 되지 않은 자>에게는
자기 것을 줘 버리면 자기 것이 아니니, 잘 주지 않습니다.

- 삼위와 하나 되려면, 보낸 자와 하나 되려면
<그 말씀>이 ‘우리 안’에 거해야 됩니다.

그 말씀으로 ‘하나님’을 알게 되고 ‘뜻’을 알게 되고,
말씀으로 ‘선과 악’을 구분하게 되고,
말씀으로 ‘믿음의 뿌리’가 내려지고,
말씀으로 ‘온전한 사랑의 역사’가 시작됩니다.

<말씀>으로 자기 안에 ‘삼위와 구원자’가 거하게 하고,
그로 인해 삼위와 구원자와 하나 됨으로 ‘하나님의 것’이 되어
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구하는 대로 받기를 축원합니다!

<잠시 쉬었다가>

- <오늘 말씀의 핵심>은 이것입니다.

“내 아버지는 농부다. 나는 포도나무요, 너희는 가지다.
열매를 맺으려면, 나와 하나 되어라.
나와 하나 되면,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.”

- 하나님과 일체, 성령님과 일체, 성자와 일체, 구원자와 일체입니다.
떨어지면 죽은 자로서,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.

<떨어지는 것>이 ‘죽음’ 입니다.

<삼위와 구원자와 일체 될 때> ‘부활’ 입니다.

곧 ‘살아난 자’ 입니다.

▶ <오늘의 핵심 말씀>을 ‘영상’ 을 통해 한 번 더 정리하면서,
말씀 마칩니다. <영상>

• 모든 나무들은 <원 나무>에서 ‘순’ 이 나고,
그것이 커서 ‘가지’ 가 됩니다.

그리고 <그 가지>에서 ‘열매’ 를 맺게 됩니다.

그러므로 <나무에서 떨어진 가지>는 ‘열매’ 를 맺을 수 없습니다.

<가지>가 <나무>와 떨어져 있으면
나무의 진액과 수분이 가지로 가지 않으니, 가지는 죽게 됩니다.

<나무와 붙어 있는 가지>만
나무의 진액과 수분을 빨아들여 ‘열매’ 를 맺습니다.

• 이와 같이

“너희는 가지이니, 포도나무가 누구인지 알고 그와 일체 되어라.
그러면 열매를 맺는다. 잘라 버리지 않는다. 잘된다.” 함입니다.

• “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.
포도나무와 가지의 주인입니다.” 했습니다.

<하나님>이 ‘주인’ 이십니다. ‘구원의 근본’ 이십니다.
<성령님>과 <성자>도 ‘일체’ 로서 ‘근본’ 이 되십니다.

〈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〉입니다. 〈끝〉